



뢰머 + 뢰머_글로벌 리얼리티시대의 회화

니나 뢰머(Nina Römer)와 토르스텐 뢰머(Torsten Römer)는 기술적인 시각미디어(technical visual media)가 갖는 기록과 가공의 기능을 작품창조에 활용해, 새로운 미학적 조건을 제시한 예술가들이다. 이들은 사진과 컴퓨터 사이의 매우 밀접하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회화를 발전시키고, 직접적인 영감에 의하거나 형식적인 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미지 창조와 재현과정을 통해 제작한다. 이 부부작가에게 있어 이미지의 생산은 회화작품을 위해 사진을 이용하고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이들의 작업은 전적으로 회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초기 단계부터 사진작업과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의 가공과정을 포함한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뢰머+뢰머의 작품은 기술적인 기초단계를 필요로 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회화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들은 사진기술이 필요한 선행 작업(the photo technical forerun)을 부정하지 않으며, 기술적인 사진이 갖는 속성을 회화로 변화시키고 그려진 화소, 색점, 색면 등을 화면 위에 표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작업은 전체적으로 회화적인 인상을 창조한다. ● 피터 폰켄(Peter Funken) 미술비평가 ● 사진 마이클숄츠갤러리 제공

니나 뢰머(Nina Römer, 1978~)와 토르스텐 뢰머(Torsten Römer, 1968~)로 구성된 뢰머+뢰머(Römer & Römer)는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부작가로서, 1998년 국제예술프로젝트에서 만나 공동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된 작업은 여행을 다니며 대도시의 일상을 사진으로 포착한 후, 이를 면밀히 관찰해 보편적 실재를 회화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총 15회의 단독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이클숄츠갤러리 서울에서 그들의 <Based on a true story>전이 개최됐다.

RÖMER RÖMER

artist II



작년 이들 부부는 세계 각국의 대도시를 여행하며 수많은 순간의 인상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그들이 찍은 사진들은 전형적인 여행사진이 아니라 회화로의 재창조 작업을 고려한 것들이다. 새로 제작한 연작에는 사진적인 요소나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 부부가 여행 중에 포착한 인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이 거창한 질문에 복잡하고 다양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눈은 모든 방향을 향해 열려 있다. 거리 장면, 축제나 행렬, 정치적 표현 등에 관심을 가지며 더불어 공공장소, 술집, 카페, 상점 등 실내공간의 이미지를 담는다. 특히 일상의 모습들을 포착한다. 이들 부부가 중시하는 것은 카메라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작품 속에는 많은 섬세한 것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시각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나 대중행사에서 이들이 포착한 밀도 높고 복잡한 모습은 회화의 특질과 이들의 회화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된다.

작게 현상된 사진에서는 거의 인식될 수 없는 것들이 대형 화면의 조밀함 속에 기이하고 명확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드러난다. 특히, 대도시 속에 있는 이 세계는 사람과 사물로 넘치며 복잡하고 압축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들의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세부 모습은 층위가 있고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투명하며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림은 우리에게 일상적이며 정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우리는 이 그림들이 고정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번 덧칠해진 색채나 수백 개의 픽셀, 작은 점들로 이루어진 존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그림들 전면에 흐르는 인상주의적 분위기는 주로 정밀하게 계산된 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는 색점이나 색줄과 같은 비정형적이며 평면적인 색채의 분배에 근거한 객관적인 그림들이기 때문이다.

1. 《Fuckparade》 캔버스에 유화 165×220cm 2008 2. 《Kirmes in Busan》 캔버스에 유화 165×220cm 2009 3. 《Mediaspree versenken》 캔버스에 유화 165×220cm 2008 4. 《Giornali in Catania》 캔버스에 유화 165×220cm 2008



마치 전 세계의 광고와 대도시나 중심지의 시각적 소음(visual background noise)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듯, 이들의 그림은 일상의 모습을 통해 전 세계의 보편적 실제(global reality)를 표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들의 그림에서 세계는 전자도시(electronic village)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면밀히 관찰하고 차별화하며 즉석사진과 같은 장면을 적절하게 회화작품으로 번역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문화에 접근할지 배울 수 있으며 변화하는 본질을 갖는 우리 자신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통해 친근한 것과 낯선 것을 덜 구분하게 되며, 오히려 부분적으로만 개요를 파악할 수 있는 세계문화의 출현에 대한 증거로서 역동적인 변화를 인식한다.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문화는 '생동감'이라는 명확한 특징을 갖는다. 이 문화의 패러다임은 변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기술혁명이나 미래에 보다 빈번하게 논의될 경제조건에 근거하고 있다.

되머+되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다룬다. 이들은 편견 없는 눈으로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은 개방적인 재현(an openness of presentation)을 이룩하며, 복잡하게 편재한 실제적인 상황을 비교, 평가, 억압함이 없이 주목한다. 시각적 현상을 기술적이고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사진, 컴퓨터, 그림 등이 이러한 과정에 개입한다. 여기서 면밀한 관찰을 통해 예술작품으로의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진다. 사실상 이러한 요소들은 실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술적인 실행의 근거가 된다. 그 같은 요소를 실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